

201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특별전
〈조선시대 예복과 장신구〉 활동지 교사용 해설

♣ 담인복식미술관 소개

담인복식미술관은 1999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장숙환(張淑煥) 교수님이 모으신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의 장신구와 의복, 가구 등 5,000여 점을 기증받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증품은 교수님의 어머니이신 담인(澹人) 장부덕(張富德, 1908~1967)님이 모으셨던 유물들을 바탕으로 장숙환 교수님이 40여년 동안 수집한 것이며, 그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담인복식미술관’이라 이름짓게 되었습니다. 담인복식미술관의 유물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대부분이며, 당시 상류 사회의 세련되고 우아한 미의식이 배어 있어 매우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 201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조선시대 예복과 장신구〉 전시 소개

담인복식미술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관 8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 〈조선시대 예복과 장신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후기 왕실의 의복과 관복을 비롯하여 여러 의식에 착용된 예복과 장신구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예로서 국가를 다스리고, 오례에 따른 각종 국가 의례를 시행했습니다. 의식을 행할 때에는 신분과 절차에 따라 그 복식이 달라졌는데, 복식은 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의례복식인 예복은 당시의 사회질서와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적절한 장신구를 함께 착용하여 의식의 권위와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복식이라는 형식으로 의례의 위엄과 의미를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나타내었던 선조들의 미감을 살펴보고, 여러 문양과 색채를 통해 유교적 가치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그림은 조선시대 말기 신부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조선시대 신부가 결혼식날 어떠한 옷차림과 장신구를 했는지 알아보시다. 빈칸에 각 유물의 명칭을 적어보고, 제시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 큰댕기(唐只)

큰댕기는 보통 댕기보다 넓고 긴 것으로 궁중이나 양반가문에서 혼례복에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뒤에 길게 늘어서 사용하였다. 긴 댕기를 반으로 접어 두 가닥 사이에 석옹황(石雄黃), 옥판, 밀화(蜜花)로 만든 장식 등을 달아 고정하였으며, 댕기 위에 '인의예지(仁義禮智)', '수복강녕(壽福康寧)' 같은 문자와 석류, 박쥐 등의 문양을 찍어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답: 화관(花冠)

화관은 여성의 예복용 관모(冠帽)로 조선 후기에 가채(加髻)를 금지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왕실에서는 주로 소례복(小禮服)인 당의(唐衣)에 착용하였고, 민간에서는 혼례 때 입는 활옷(華衣) 차림에 많이 사용하였다. 화관은 검은 종이로 만든 관 위에 금박지로 문양을 오려 붙이고, 정수리에 옥판과 각종 보석을 올려 꾸몄다.



답 : 당혜(唐鞋)

당혜는 부녀자가 신던 갓신의 하나로, 몸체는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고 겹에는 비단을 씌우며 신고와 뒷축에 당초문을 새겨 넣는다. 주로 양반층 부녀자들이 신었으며 서민도 혼례 때 신었다.



답: 원삼(圓衫)

원삼은 둥근 형태의 맞깃이 달린 궁중 예복으로 왕비는 홍원삼(紅圓衫), 비빈은 자적원삼(紫赤圓衫), 공주·옹주는 녹원삼(綠圓衫)을 입었으며,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후는 황원삼(黃圓衫)을 착용하였다. 이 중 녹원삼은 민간에서도 착용이 허락되어 활옷과 함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다. 민간에서 혼례 때 사용한 것과 궁중에서 착용한 것은 같은 원삼이라도 차이가 있는데, 민간 원삼은 옷과 소매의 길이가 짧고, 품과 소매통이 좁으며, 소매에 붙인 색동의 폭이 넓고 그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 1] 아래 사진들은 매죽, 호두, 용, 석류 모양이 장식된 비녀 머리의 모습입니다. 이 중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실에서 여러 의례용, 일상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혼례일 하루만 사용이 허락되었던 장식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3번, 용비녀(龍簪)



1. 파란 매죽문 비녀(玻璃梅竹簪)

비녀는 기혼 여성의 대표적인 머리 장신구로 조선 후기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재료와 비녀 머리의 모양에 따라 용잠, 봉잠, 매죽잠 등으로 칭하였다. 매죽잠은 비녀머리를 매화와 대나무 잎 문양으로 장식한 것으로 궁중에서 의례용 · 일상용으로 두루 쓰였으며 민간에서도 즐겨 사용되었다.



2. 비취 호도 비녀(翡翠胡桃簪)

비취로 만든 비녀는 여름에 외출 시나 특별한 날에 사용하였다. 이 비취비녀의 머리는 호두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호도잠은 민간 부녀들에게 애용되었다. 호두는 공예품의 문양으로서는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비녀에서는 자주 사용된 장식문양으로, 호두의 모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호두의 둥근모양을 바탕으로 매화, 국화, 새 등의 문양을 활용하여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3. 도금 용 비녀(鍍金龍簪)

용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비녀 머리에 용을 장식한 용잠은 왕실에서 의례용과 일상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부녀도 혼례일 하루만은 용잠을 사용할 수 있었다.



4. 흑각 석류 비녀(黑角石榴簪)

흑각잠은 물소뿔로 만든 비녀로 상제(喪祭)용이다. 긴 것은 제사용, 짧은 것은 상중에 쪽머리에 꽂았다. 이 비녀의 머리에는 아직 여물지 않은 석류가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석류는 열매 안에 많은 종자가 들어 있어 예로부터 많은 자손, 아들을 많이 낳길 바라는 기복적인 의미가 담겼으며 각종 공예 장식문양으로 활용되었다.

[문제 2] 다음 사진들은 조선시대 혼례복인 활옷(華衣)입니다. 왼쪽 원삼은 궁중용, 오른쪽의 것은 민간에서 사용된 활옷인데, 옷의 길이나 소매의 폭, 장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 진열된 두 옷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차이를 찾아 적어봅시다.

정답)	궁중용	민간용
		
	1. 민간용 활옷의 길이가 궁중의 것보다 짧고 소매폭도 좁다. 2. 궁중용 자수 문양의 종류가 민간용보다 훨씬 다양하다. 3. 궁중용 자수문양의 테두리는 금사(金絲, 금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 미술 Tip

활옷(華衣)은 공주 · 왕자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민간에서도 혼례에 한하여 착용하였습니다. 겉은 다홍색, 안은 남색 비단을 사용했으며 다양한 길상문양들이 수놓아졌

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연꽃 · 불로초 · 바위 등과 부귀를 뜻하는 모란, 다산(多産)을 의미하는 아홉 마리의 봉황과 연꽃을 든 동자 등 다양한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또한 이 성지합(二姓之合), 만복지원(萬福之源)등과 같은 문자를 화려하게 수놓아 복과 장수를 기원하였습니다.

궁중에서 사용한 활옷과 민간 활옷은 세부적인 면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문제에 제시된 궁중활옷과 민간활옷을 비교해보면, 일단 민간활옷은 궁중활옷에 비해 옷의 전체 길이가 짧고, 소매 폭도 좁습니다. 또한 십장생, 석류, 불수감(佛手柑), 연꽃, 칠보문(七寶文) 등 다양한 문양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궁중활옷에 비해 민간활옷에 장식된 문양은 그 종류가 현저히 적습니다. 문양의 테두리가 금사로 수놓인 것도 민간활옷에서는 볼 수 없는 궁중활옷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왼쪽 사진은 조선시대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장신구인 노리개입니다. 하나만 차는 노리개는 단작 노리개(單作佩飾), 세 개를 동시에 차면 삼작 노리개(三作佩飾)라고 하였으며, 특히 사진 속 노리개와 같은 것은 대삼작노리개(大三作佩飾)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보기들은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만든 노리개 장신구인데, 이 중 다자손(多子孫)과 다복(多福)을 의미하여 각종 공예문양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2번 밀화 불수감.



노리개는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된 장신구로, 단작 노리개는 평상시에, 삼작은 예복차림에 사용되었다. 특히 사진 속 노리개와 같은 것은 대삼작노리개라 하여 노리개 중 가장 호화롭고 큰 것을 지칭하며 주로 궁중에서 원삼이나 활옷 등 예복 차림에 사용되었다. 노리개는 호랑이 발톱, 나비, 향갑, 장도 등 다양한 소재로 장식되었는데, 대삼작노리개는 보통 밀화(蜜花)로 만든 불수감(佛手柑) 모양과 옥으로 만든 나비 한 쌍, 산호가자 장식이 짝을 이루었으며, 청, 홍, 황의 세 가지 색 술을 달았다.

불수감은 감귤류의 일종으로 그 생김새가 부처의 손가락을 닮아서 '불수감'이라고 불렸으며, '불(佛)'이 '복(福)'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 복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다. 또한 복숭아, 석류와 함께 다수(多壽), 다자손(多子孫)을 의미하는 대표적 소재로 그림으로서뿐 아니라 도자기, 가구, 옷 등의 문양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문제 4] 아래 그림은 조선시대 관리가 예복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빈칸에 각 유물의 명칭을 적어보세요.



답: 금관(金冠)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은 경사스런 의식 때 조복(朝服)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착용하였다. 금관의 앞면 윗부분에는 금색의 세로선이 여러 줄 있는데 이를 '양(梁)'이라고 하며, 때문에 '양관(梁冠)'이라고도 한다.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다른데 5줄은 1품, 4줄은 2품에 해당한다. 이 금관은 5량관으로 1품의 관에 해당한다.



답: 조복(朝服)

조복은 경축일에 왕에게 하례를 드릴 때나 표문을 올릴 때 관리들이 착용하였던 예복이다. 머리에는 금관(양관)을 쓰고 적초의, 적초상, 백초중단을 입었다. 또한 가슴에는 폐슬(蔽膝)을 달고 뒤에는 수(後綬)를 달며, 혁대(革代)를 띠고 양 옆에 패옥(佩玉)을 찻으며 혜(鞋)를 신고 홀(笏) 들었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의 수, 허리띠와 홀의 재료, 후수의 무늬, 패옥의 색상 등이 달랐다.



답 : 후수(後綬)

후수는 조복과 제복(祭服: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관리들이 입었던 옷)의 뒤에 늘이는 장식으로 품계에 따라 수놓은 문양과 고리(環)의 재료를 달리하였다. 세 쌍의 학과 구름을 수놓고 두 개의 금환을 달은 이 후수는 1·2품에 해당되는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로 대대(大帶: 예복에 착용하는 큰 띠)에 고정되어 있다.



답: 패옥(佩玉)

조복의 허리 양옆에 늘이는 장식품으로 걸어다닐 때 부딪히는 옥의 맑은 소리가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는 벽사의 의미와 함께 나쁜 마음이 제거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품에서 3품은 번청옥(燐靑玉)을 차고, 4품에서 9품까지는 번백옥(燐白玉)을 찻으며 바람에 줄이 엉키지 않도록 주머니에 넣어 양 옆에 찻다.

[문제 5]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마에 망건을 두르고 상투를 튼 머리에 갓이나 정자관 같은 각종 모자를 착용하였습니다. 이 때 왼쪽 그림의 화살표 표시가 된 위치에 부착한 것으로, 망건의 좌우에 달아 줄을 거는 고리 역할을 한 것은 아래 예시들 중 무엇일까요?

정답) 2번, 관자(貫子)



1. 풍잠(風簪)

풍잠은 망건 앞에 다는 반달형의 장식품으로 갓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류층에서는 거북이 등껍질인 대모, 호박, 옥, 수정 등으로 만든 풍잠을 사용하였으며, 서민들은 보통 나무나 소뿔(牛角)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2. 관자(貫子)

관자는 망건의 좌우에 달아 당줄을 걸어 넘기는 구실을 하는 작은 단추모양의 고리로 계급에 따라 재료와 모양을 달리하였다. 관직이 높을수록 크기가 작고 장식이 없는 관자를 사용하였는데, 가령 옥으로 만든 것은 1품, 도금된 것은 2품의 관리가 사용하였다. 장식이 있는 관자는 종2품 이하의 관리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동곳(簪)

동곳은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정수리에 꽂아 고정시키는 일종의 비녀와 같은 남성들의 머리 장식이다. 동곳의 머리는 콩이나 버섯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신분에 따른 재료의 제한은 없으나 상류층에서는 옥, 산호, 호박 등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고 서민층의 것은 은이나 백동 등으로 제작되었다.



4. 선추(扇錘)

선추는 부채의 고리에 달아 늘인 장식품이다. 원래 과거를 치른 양반이나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무관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갑오경장(1894) 이후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선추에는 사슴이나 학, 박쥐, 누각, 거북, 잉어, 대나무, 인물 등 다양한 장식 문양이 조각되었는데, 이러한 장식적인 기능 외에도 침(針)을 넣은 침통, 나침반, 인장(印章), 응급 약재용 향 등을 달아 사용하는 기능성인 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